

## 「최북전(崔北傳)」에 나타난 중인 예술가의 자의식에 관한 조희룡(趙熙龍)의 문제의식 연구\*

김 경 회\*\*

1. 들어가며
2. 최북의 행적 분석 - 강한 자의식과 기행
  - 1) 도입부 - 독특하고 강한 자의식
  - 2) 전개부1 - 강한 자의식과 자의식의 과잉
  - 3) 전개부2 - 자의식의 과잉이 초래한 불행
3. 조희룡의 문제의식 - 중인 예술가의 자의식
4. 나가며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조희룡의 「최북전」과 최북의 행적이 기록된 자료들을 비교하며 중인 조희룡의 문제의식을 살펴보았다. 첫째, 조희룡은 직업 화가인 중인 최북의 독특한 자의식, 뛰어난 그림 실력, 그림에 대한 강한 자부심, 오만한 성격 등을 인정하였다. 둘째, 자의식이 강한 최북의 결벽적 자신감과 오만한 성격으로 야기된 타인과의 갈등, 그 갈등의 해결의 어려움, 이로 인해 일을 그르친 일 등과 관련된 일화를 제시하였다. 셋째, 자의식이 과잉적으로 확대된 최북의 오만한 성품과 일탈적 성향이 그의 예술과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문제성 또는 위험성을 드러낸 일화를 묘사하였다. 넷째, 자의식의 과잉이 초래한 자해 행위를 통해 최북이 자신의 과오로 궁지에 몰린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자신의 과오로 야기된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지른 자해 행위를 통해 그의 자부심과

\* 이 논문은 2023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울산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kyunghoi76@ulsan.ac.kr)

신념이 일순간에 무너진 일화를 서술하였다. 이러한 일화들을 순차적으로 기술하여, 조희룡은 사회적 차별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최북이, 자신이, 중인이 일상적 삶과 예술인의 삶을 지속할 수 있었기를 또는 있기를 바랐다.

\* 주요어: 조희룡, 최북, 중인, 차별적 신분 제도, 자의식의 과잉

## 1. 들어가며

조선 후기의 예술인(藝術人)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중 시(詩), 서(書), 화(畫)를 겸비한 직업 화가로 기행(奇行)을 거듭한 중인(中人) 최북(崔北, 1712~1786)의 행적과 작품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그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그의 기행을 봉건적 모순이 압도적이었던 당시에 천재적 예술가가 취할 수 있는 반항과 현실 초극의 몸짓으로 판단한 연구<sup>1)</sup>, 그의 의식 성향과 예술 작품 세계를 사회적 조건에 따라 검토한 연구<sup>2)</sup>, 예리한 감성이란 이성적 사유와 도덕적 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을 때 객기로 떨어져 낭만적 반항의 허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그 허점이 많은 최북은 인생을 쉽게 살았고 예술 세계의 준엄한 규율을 몰랐다고 평한 연구<sup>3)</sup>, 심학적(心學的) 미의식을 바탕으로 최북의 회화 세계를 탐구한 연구<sup>4)</sup> 등이 있다.

그런데 조희룡(趙熙龍, 1789~1866)의 「최북전(崔北傳)」<sup>5)</sup> 특히 “눈을 찌른 일화”에 관한 논의들도 있으나,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 그것에 대한

1) 박희병, 「조선후기 예술가의 문학적 초상 - 예인전의 연구」, 『대동문화연구』 2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0, 142쪽.

2) 홍선표, 「崔北의生涯와意識世界」, 『미술사연구』 5, 미술사연구회, 1991, 12쪽.

3) 유홍준, 「호생관 최북 - 붓으로 먹고살다 간 질질이의 이야기」, 『화인열전』 2, 역사비평사, 2001, 164쪽.

4) 한경애, 「毫生館 崔北 書畫의 心學的 美意識 考察」, 『서예학연구』 30, 한국서예학회, 2017, 49쪽.

5) 본고에서는 조희룡,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최북전(崔北傳)」, 『趙熙龍 全集 6 - 壺山外記』, 한길아트, 1998의 원문과 번역을 참고하였다.

심도 있는 고찰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먼저 그 일화의 의미를 논의한 결과들이 매우 상이하다. 예컨대 최북의 불기(不羈)의 기질을 환기시켜 그의 예술가적 개성을 드러냈다는 연구<sup>6)</sup>, 최북의 기행은 차별과 멸시에 대한 반항적 기질에서 나온 것으로 그의 오기(傲氣)와 기이(奇異)한 성격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한 연구<sup>7)</sup>, 신광하(申光河, 1729~1796)의 「최북가(崔北歌)」나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의 「최칠칠전(崔七七傳)」에는 최북의 한쪽 눈이 먼 원인이나 배경이 전혀 없으며 『호산외기(壺山外記)』가 허구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조희룡이 최북의 기개와 울분을 강조하면서도 그의 재능이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진 비극과 기구한 운명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sup>8)</sup> 등이 있다. 이처럼 논자마다 해당 일화의 의미를 예술가의 개성, 괴팍한 성격, 기구한 운명을 극대화하기 위한 허구 등으로 다르게 파악한 만큼, 「최북전」에 나타난 조희룡의 문제의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최북이 눈을 찌른 일화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기행 관련 일화와 차이가 있고, 조희룡은 그것을 최북이 불행을 자초한 의미로 서술한 만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해당 일화는 갈등의 고조 측면에서 기행이 나타난 다른 일화들과 판이하다. 기행이 나타난 일화들에서 최북과 상대방의 갈등은 심화되지 않았고, 당시의 정황은 최북의 언행을 동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다. 반면 눈을 찌른 일화에서는 최북과 귀인(貴人)의 갈등이 고조되었고, 귀인이 최북을 위협하여 사태는 최북이 궁지에 몰리는 극단적 국면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북이 자신의 눈을 찌른 요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다른 일화들에서 최북의 분노의 대상은 타인이었지만, 눈을 찌른 일화에서는 분노의 대상을 자신의 눈 즉 본인으로 지목한 사실을 검토해야 한다. 최북이 자신의 눈을 찌른 것은 유례없는 극단적 상황에 처한 최북이 스스로를 분노 및 제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처벌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

6) 한영규, 「중인층 傳記集 <壺山外記>의 성격과 위상」,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83~84쪽.

7) 김도영, 「崔北 文人畵의 狂狷의 예술심미」,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1,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9, 115쪽.

8) 유재빈, 「崔北, 奇人 화가의 탄생」, 『대동문화연구』 10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53~55쪽.

째, 최북이 자신의 눈을 찌른 것을 예술인의 자해 행위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죽고자 하는 의도 없이 직접적이고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인 비자살적 자해 행동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기<sup>9)</sup> 때문이다. 즉 최북의 자해 행위는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극심한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경우 「최북전」은 기존의 시각인 저항, 개성, 허구 등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조희룡이 최북의 자의식의 양상과 자의식의 과잉이 야기한 불행을 고려하여 서술한 최북의 내력, 기행 관련 행적, 논란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즉 최북의 강한 자의식과 오만한 성품,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그 갈등의 해결의 어려움, 자기 처벌 또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강한 자의식에 따른 기행이 점철된 최북의 삶이 비운(悲運)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과, 중인 예술가로서 그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한 조희룡의 문제의식을 확인할 것이다.

## 2. 최북의 행적 분석 - 강한 자의식과 기행

「최북전」은 최북의 독특하고 강한 자의식을 바탕으로 그의 뛰어난 그림 솜씨와 그림에 대한 자부심, 오만한 성품을 서술한 '① 도입부', 최북의 강한 자의식과 자의식의 과잉에 따른 기행을 묘사한 '② 전개부1', 자의식의 과잉이 초래한 불행으로 최북이 눈을 찌른 사건과 그의 사망을 제시한 '③ 전개부2', 최북의 삶을 평가한 '④ 논란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장에서는 ④의 근거인 ①~③을 살펴볼 것이다. 이때 「최북전」에 나타난 최북의 행적(가~배)을 다른 자료들에 기록된 그것들과 일일이 비교하는 입체적 접근을 통해, 간략하게 서술된 행적 속에 함의된 의미 또는 행간의 뜻을 추론하여 조희룡의 문제의식을 명료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9) 이정원, 「군에서의 분노와 자해표현행동과의 관계에서 이차적 분노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1-7,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5, 248쪽.

## 1) 도입부 - 독특하고 강한 자의식

(가) 최북은 자가 칠칠(七七)이니 자 또한 기이하다. 산수와 가옥, 수목을 잘 그려서 필치가 짙고 무게가 있었다. 황공망(黃公望, 1269~1354)을 사숙(私淑)하더니 끝내는 자기의 독창적인 의경(意境)으로 일가(一家)를 이루었다. 스스로 호를 호생관(毫生館)이라 하였다.<sup>10)</sup>

문기(文氣)가 높았던 황공망의 필법을 존중하여 문기를 중시하는 화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독서하고 여행하며 살아 있는 공부를 계속한<sup>11)</sup> 최북은, 자신이 인식한 내적 형상과 객관적 상관물을 새롭게 그리는 경지에 올랐다. 이러한 최북의 자(字)인 칠칠은 자신이 미천한 신분의 못난 자임을 반항적으로 드러낸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당(唐)나라의 신선(神仙)인 은천상(殷天祥)의 호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최북은 칠칠을 통해 현실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꽃을 피우는 신비한 능력을 연상했을 수 있다. 이는 최북의 그림이 현실을 충실히 묘사하기보다는 사의(寫意)에 기우는 경향이 있고, 그 주제도 속된 세상을 벗어나 자연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측면에서 일면 타당하다. 또한 최북의 호(號)인 호생관은 붓으로 살아간다는 뜻으로 자기 비하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그것은 명나라의 저명한 남종(南宗) 문인 화가인 정운봉(丁雲鵬, 1547~1628)의 호이기도 하다. 남종 화풍을 선호한 최북이 자신과 기미(氣味)가 통하는 남종화 대가의 운치 어린 사연을 본받아 그의 호를 빌려 쓴 것이라면, 호생은 붓끝에서 위대한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뜻으로 이해되기에, 호생관은 굉장한 자긍심의 소산일 수 있다. 즉 도도하고 편벽된 최북의 성품을 보면 스스로를 비하하는 호칭을 쓴 것은 어울리지 않으며<sup>12)</sup> 이러한 독특하고 강한 자의식은 그의 그림 실력과 그림에 대한 태도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최북은 자가 칠칠이다. 초명은 식(植)이라 했는데, 이때 자는 성기(聖

10) 崔北 字七七 字亦奇矣. 善畫山水屋木 筆意蒼鬱. 瓣香大癡 終以己意 成一家者也. 自號毫生館. 조희룡, 실시학사 고전문화연구회 옮김, 앞의 책, 59~60쪽.

11) 허성욱·하영준, 「최북의 서예 연구 - 화제시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93, 한국사상문화학회, 2018, 238쪽.

12) 안대회, 『벽광나치오 - 한 가지 일에 미쳐 최고가 된 사람들』, 휴머니스트, 2011, 63~67쪽.

器)였다. 본관은 경주이며 숙종 임진년(1712) 생으로 계사(計士) 상여(尙餘)의 아들이다.<sup>13)</sup>

우선 그의 그림 실력을 살펴보자. 최북의 아버지 최상여는 계사의 직책에 있었다. 계사는 호조(戶曹)에서 회계 실무를 담당한 중8품 벼슬로 기술직 중인이 많았으므로, 최북은 한미한 집안에서 자랐을 것이다. 최북은 세습성이 강한 계사의 아들이며 계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가문의 하나인 경주 최 씨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회화 방면으로 진로를 택하였다. 이는 그의 그림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익(李瀾, 1681~1763)은 최북이 자취를 정밀하고 진실하게 묘사하였다고 평가하였고<sup>14)</sup>, 그의 조카 이용휴(李用休, 1708~1782)는 최북의 재주를 조화옹이 노련한 솜씨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경을 발휘한 것으로 비유하였다.<sup>15)</sup> 이현환(李玄煥, 1713~1772)<sup>16)</sup>, 신광하(申光河, 1729~1796)<sup>17)</sup>, 남공철<sup>18)</sup>, 조희룡도 최북의 그림 솜씨를 높이 평

13) 崔北 字七七. 初名埴 字聖器. 慶州人 肅宗壬辰生 計士尙餘子也. 연구소 한문분과, 「이가환(李家煥)의 <정헌세록(貞軒瑣錄)>」, 『민족문화사연구』 30,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06, 406쪽.

14) 그림은 참으로 산을 옮기는 기술인데 최생이 그에 능하단 말을 이미 들었지. 자연에 노닐던 당시의 모습은 볼 수 없고 요즘 세간의 음악 놀이는 그저 질탕하네. 냇가에서의 진솔한 그 자취를 잘 묘사하여 필획 하나하나로 정밀히 분석했구나. 서예가 중에 후 태태(尊胎)의 신기(神奇)가 있을까 싶어서 이 화가가 전신(傳神)의 공을 먼저 드러냈네(丹青大是移山術 能事崔生余已聞. 不見當時風零樂 世間絲管徒羶草. 臨川眞迹相發揮 點畫一一毫芒分. 書家容有尊胎奇 畫廚先策傳神動.). 이익, 『성호전집(星湖全集)』 권4, 「난정도가(蘭亭圖歌)」. (<https://www.itkc.or.kr/>, 검색일: 2023.03.11. 이하 동일)

15) 은칠칠은 때도 아닌데 꽃을 피우고 최칠칠은 흙이 아닌데도 산을 일으켰다. 모두 극히 짧은 시간에 한 일이니 기이하다. (중략) 나는 “이 산은 (조화옹이) 노성하여 노련한 솜씨를 갖춘 후에 특별히 새로운 의경을 발휘하여 그린 것이다.”라고 말한다(殷七七非時開花 崔七七不土起山. 皆以頃刻 異哉. (중략) 余謂: “此山 乃其老成手熟後 又別出新意勗造者.”). 이용휴, 『단만집(數數集)』, 「제봉악도(題楓嶽圖)」.

16) 칠칠 최북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다(七七以善畫 鳴于世.). 이현환, 『섬와잡저(蟾窩雜著)』, 「최북화설(崔北畫說)」; 정은진, 「蟾窩 李玄煥의 繪畫 관련 說」 작품 분석, 『한문학논집(漢文學論集)』 61, 근역한문학회, 2022, 55~56쪽 재인용.

17) [최북이] 존귀한 집의 병풍에 그린 산수도(山水圖)는, 안건(安堅, ?~?)과 이징(李澄, 1581~?)을 한 번에 무너뜨렸다(貴家屏障山水圖, 安堅李澄一掃無.). 신광하, 『진택집(震澤集)』 권7, 「최북가(崔北歌)」; 신광하, 임혁택 옮김, 「최북가(崔北歌)」, 『李朝時代 敘事詩』 下, 창작과비평사, 1992, 276~277쪽.

18) [최북은] 그림에 뛰어났는데 한쪽 눈이 멀어 일찍이 안경을 한쪽만 끼고 화첩을 임모(臨模)

가하였다.<sup>19)</sup>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최북은 마음대로 꽃을 피우는 신비한 능력과 강한 자의식을 근간으로 그림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산은 더욱 궁해져 드디어 서경(西京)과 동래(東萊)를 떠돌며 그림을 그려 파니 이 두 지방 사람들이 값진 비단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서로 이어져 끊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산수를 그려 달라고 청하였는데, 산만 그리고 물은 그리지 않았다. 그 사람이 괴이히 여기며 따지니, 칠칠은 붓을 던지고 일어서며 “어허 종이 밝은 모두 물이잖소.”라고 말하였다. 그림이 잘 되었는데 그림 값이 적으면 칠칠은 문득 화를 내어 욱하며 그림을 찢어 없앴고, 혹 그림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 값을 지나치게 가져오면 깔깔거리고 웃으며 그 사람을 주먹으로 밀어 도로 짊어지고 문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다시 불러 웃으며 “그 녀석 그림 값도 모르는구나.”라고 말하였다.<sup>20)</sup>

그렇다면 그림 실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최북이 빈곤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위의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최북은 자신이 그린 그림의 가격에 대해 과민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자신의 예술품에 대해 그 가치만큼의 값을 받는 것이 옳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는데, 이는 예술가적 결벽의 소산이다. 이처럼 그는 자기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지만, 그의 그림 값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이는 최북이 그림 한 폭을 팔아서 한 끼를 해결했다는 기록<sup>21)</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을 팔기 위해 서경에서 동래까지

---

하였다(工畫 眇一目 嘗帶鬻鬚半 臨帖摹本). 남공철, 『금릉집(金陵集)』 권13, 「최칠칠전(崔七七傳)」; 유재건,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천하 명인은 천하 명산에서 죽어야 한다 - 호생관 최북」, 『이향견문록』, 글항아리, 2008, 584쪽.

19) 최북의 그림에 찬사를 보낸 사람들은 여항 화가에게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여항 화가와 회화 활동을 하며 교류한 자들로, 여항 화가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후원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최북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의 화재(畫材)를 인정한 것은 그의 그림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서로 심리적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조선의 정치, 사회 제도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박지현, 「烟客許佖과 18세기 安山의 회화활동」, 『미술사학연구』 252, 한국미술사학회, 2006, 197~198쪽.

20) 貨益窘 遂客遊西京萊府賣畫, 二府人持綾綉踵門者相繼. 人有求爲山水 畫山不畫水. 人怪詰之 七七擲筆起曰: “唉紙以外皆水也.” 畫得意而得錢少 則七七輒怒罵裂其幅不留, 或不得意而過輸其直 則呵呵笑, 拳其人 還負出門 復指而笑 “彼豎子不知價.” 남공철, 앞의 책; 유재건,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앞의 책, 585쪽.

다녔다는 기록과 열흘을 굶다가 그림 한 폭을 팔았다는 기록<sup>22)</sup>을 보면 그림이 잘 팔리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북은 “오직 그림은 제 뜻에 맞게 할 뿐입니다. 세상에는 그림을 아는 자가 드뭅니다. 진실로 그대의 말과 같다면, 비록 백대 후의 사람이 이 그림을 보더라도 그 사람됨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니, 저는 뒷날 저를 알아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였다.<sup>23)</sup>

사실 최북처럼 도화서(圖畫署)에 소속되지 않고 시정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팔아 살아가는 직업 화가는 조선 후기에 출현하였다. 이는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따라 그림의 수요층이 여항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sup>24)</sup> 그런데 직업 화가의 활동과 최북의 의식 사이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자의식이 강했던 최북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팔기 위해 도화서에 들어가지 않고 직업 화가가 되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층의 기호에 맞추어 그림을 그려야 했다. 즉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것과 수요층의 기호에 맞추어 그림을 그리는 것은 동일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양자택일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최북은 수요층의 기호보다 자유로운 창작을 선호하였기에 경제적 고충을 겪었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자신의 그림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기다리겠다며 그림에 대한 결백적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가)는 최북의 강한 자의식과 그림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다.

병풍과 족자를 가지고 그림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칠칠은 처음에는 기뻐하며 바람처럼 소매를 떨치고 잠깐 사이에 그림을 그려 물 흐르는

21) 아침에 그림 한 폭을 팔아 아침을 먹고, 저녁에 그림 한 폭을 팔아 저녁을 먹네(朝賣一幅得朝飯 暮賣一幅得暮飯). 신광수, 『석북집(石北集)』 권6, 「최북설강도가(崔北雪江圖歌)」.

22) 열흘을 굶다가 그림 한 폭을 팔면, 크게 취한 채 밤에 돌아와 성의 모퉁이에 눕네(賣畫一幅十日饑 大醉夜歸臥城隅). 신광하, 앞의 책; 신광하, 임형택 옮김, 앞의 책, 276~277쪽.

23) 七七曰：“惟畫適吾意而已。世之知畫者鮮矣。誠如子之言，雖百世之下觀此畫者可以想其人。吾欲以俟後之知音也。” 이현환, 앞의 책; 정은진, 앞의 논문, 56쪽 재인용.

24) 박희병, 앞의 논문, 93쪽.

듯 순순히 응했다. 무진년(1748)에 화원으로 선발되어 일본에 갔는데 일본인들이 값진 보물을 가지고 그의 그림을 청하는 자가 많았다. 그가 조선으로 돌아와서는 그림의 격조가 더욱 기묘하고 명성은 더욱 드러나 사방에서 그림을 청하러 오는 자가 그의 집 앞에 줄을 섰다. 왕공 귀인들이 간혹 심하게 환쟁이로 그를 부리기도 하였다. 최북은 드디어 이에 싫증을 내고, 흰 비단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으면 문득 받기만 하고 던져 두어 꺾적이 차고 상자에 쌓여 어떤 것은 한 해를 묵혀도 기꺼이 붓을 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 많았다. (중략) 그는 일찍이 “사람 중에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 자는 비록 도덕과 문장이 있어도 드디어 ‘환쟁이’라는 치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sup>25)</sup>

이처럼 자의식이 강했던 최북은 신분적 차별과 뛰어난 그림 실력의 간극 때문에 고뇌하였다. 최북은 처음에 사람들이 그림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응했고, 일본에 다녀온<sup>26)</sup> 이후 그의 위상이 높아져 그림 주문도 많아졌다. 다만 최북에 대한 일부 지배층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당시는 사대부인 강세황(姜世晙, 1713~1791)도 그림을 그려 천대받을 수 있는 시대<sup>27)</sup>였기에, 그들은 중인 신분의 화가인 최북을 예전처럼 천대했고, 이로 인해 최북의 율적인 심사는 심화되었다. 즉 당시의 서얼처럼 최북도 일본에서 그림 실력을 발휘하여 인간적으로 대우 받으며 율분을 삭였을 것이다.<sup>28)</sup> 그 후 조선으로 돌

25) 人有持屏篋以請者，七七始喜之 奮袂如風，須臾而成 其應若流。粵在戊辰之歲 以畫被選 入日本，倭人以寶貨求其畫甚衆。及歸也 格益奇而名益著，四方之人 來請畫者 足相躡於其門。王公貴人甚或使之以畫師。七七終厭之 人有以紉素來者 輒受而置之 盈奩軸 而積箱篋 或有經歲而不肯下筆者 夥矣。(중략) 故嘗曰：“人之癖於畫者 雖有道德文章 卒蒙畫師之恥。” 이현환, 앞의 책; 정은진, 앞의 논문, 55~56쪽 재인용.

26) 최북은 당시 조선 통신사 사행원(使行員)의 명단에 없기에 일본에 수행 화원(畫員)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정사(正使), 부사(副使), 종사관(從事官)의 개인적인 수행 반인(伴人)으로 따라갔을 것이다. 유홍준, 앞의 책, 148쪽; 홍선표, 앞의 논문, 13쪽.

27) 임금님께서 특별히 “말세에 인심이 좋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천한 기술을 가졌다고 하여 업신여기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니, 그림을 잘 그린다는 이야기는 다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上特敎曰：“末世多歧心 恐人或有以賤技小之者，勿復言善畫事.”). 강세황, 김중진 외 옮김, 『표옹자지(豹翁自誌)』, 『표암유고(豹菴遺稿)』, 지식산업사, 2010. 650쪽(번역), 653쪽(원문).

28) 당시에 통신사(通信使)의 제술관(製述官)과 서기(書記)로 참여한 서얼(庶孽)은 신분 질서를 엄격히 규제한 문명의 피해자였지만, 그 문명의 내면화를 통해 일본인에게 재능을 과시하였고 해외에서 문명을 날리며 율울한 심사를 풀었다. 김경숙, 「서얼 문화의 위상 - 소외(疏

아온 최북은 일본에서 받은 대우 또는 자신이 바란 인간적 처우와, 조선 사회에서 경험한 차별적 처우의 괴리가 현격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로 인해 그의 품성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모하였고, 이는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세인은 최북을 술꾼, 미친놈으로 평가하였다.<sup>29)</sup>

(내) 그[최북]는 사람됨이 격양(激仰)하고 돌을(突兀)하여 조그마한 예절에 스스로 얽매이지 않았다.<sup>30)</sup>

그[최북]는 성품이 칼끝이나 불꽃 같아서 조금이라도 뜻에 어긋나면 곧 욕을 보이니, 사람들이 모두 못쓸 독(毒)이어서 고칠 수 없다고 지목하였다.<sup>31)</sup>

[최북은] 기생이 있는 요릿집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기생들은 그의 명령을 감히 어기지 못했고, [그는] 늘 현악기와 관악기의 주인이 되었다.<sup>32)</sup>

최북의 품성을 기록한 사람들은 최북의 괴팍하고 오만한 성격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성품은 다음 절에서 다룰 강한 자의식에 따른 기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최북의 성격 및 기행은 그의 그림 실력을 절하하는 요인으로 이해되었다. 예컨대 이규상(李奎象, 1727~1799)은 그의 성품이 독으로 지칭된 사실을 수궁하였고, 성해응(成海應, 1760~1839)도 기생들이 최북의 말을 어기지 못할 정도로 그의 성품이 사나웠다는 점을 은근히 비판하였다. 조희룡도 당시에 논란거리였던 최북의 강한 자의식에 따른 오만한 성격을 문제시하였다. 즉

외)의 문학에서 선구적(先驅的) 문화 담당층으로»,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156쪽·162쪽; 조현우, 「조선 후기 通信使行에 나타난 '中間者'와 '他者' - 癸未使行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5, 고전문학한문학회, 2008, 48쪽.

29) 세상 사람들은 칠칠을 주객(酒客)이나 그림쟁이로 여기며, 심한 경우 광생(狂生)으로 지목하였다(世以七七爲酒客爲畫史 甚者目以狂生.). 남공철, 앞의 책; 유재건,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앞의 책, 587쪽.

30) 爲人激仰突兀, 不以小節自束. 조희룡,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앞의 책, 59~60쪽.

31) 北性如刀鋒火焰 小忤意 輒辱之人, 咸目以妄毒 不治生. 이규상,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최북(崔北)』, 『18세기 조선 인물지 - 并世才彥錄』, 창작과비평사, 1997, 146~147쪽·285쪽.

32) 好遊妓館, 羣妓不敢違其令 常爲絲竹之主. 성해응,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속집(續集)』 책 16, 『서화잡지(書畫雜識)』, 『제최북화후(題崔北畫後)』.

도입부인 (가)~(나)에서 당대인이 공감한 최북의 독특하고 강한 자의식을 근간으로 그림에 대한 그의 강한 자부심, 그의 뛰어난 그림 솜씨와 거만한 성격 등을 개략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전개부인 (다)~(애)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이 그의 삶 특히 기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유기적으로 형상화하였다.

## 2) 전개부1 - 강한 자의식과 자의식의 과잉

(다) [최북은] 일찍이 어떤 집에서 한 달관(達官)을 만났는데, 그 달관이 최북을 가리키면서 주인에게 물었다.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은 성명이 무엇인가?” 이에 최북은 얼굴을 치켜들고 달관을 보면서 말했다. “먼저 묻노니, 그대의 성명은 무엇인가?” 그 오만함이 이와 같았다.<sup>33)</sup>

(애)는 최북의 강한 자의식에 따른 오만한 성격이 단적으로 드러난 일화로, 그는 조선의 신분 제도가 요구하는 예절과 거리가 멀었다. 최북은 고관대각이 무례를 범했다고 판단하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그에게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는 동등한 대우에 대한 최북의 기대, 최북의 자신감 내지 당당함 등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고개를 뻗뻗이 치켜들고 달관을 쳐다보며 흥분하여 말했을 최북을 상상하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최북도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 상황은 아니다. 달관이 자신을 멸시하듯 말하였으니 자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말을 건네겠다는 최북의 의도는 짐작하겠으나 그것은 상대방의 사정을 고념(顧念)하지 않고 심지어 무시한 자세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그 갈등의 해결의 곤란, 절연(絶緣) 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칠칠은 성질이 오만하여 남을 잘 따르지 않았다. 하루는 서평군(西平君, 1687~1756)과 백금(百金)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었다. 칠칠이 바야흐로 이기고 있는데 서평군이 한 수를 물러 달라고 청했다. 칠칠은 드디어 바둑돌을 흩어버리고 손을 떼고 앉아, “바둑은 본래 즐기는 데 그 뜻

33) 嘗於某家 逢達官, 達官指北 向主人曰: “彼坐者 姓誰?” 北仰面向達官曰: “先問 君姓誰何?” 其傲慢如是. 조희룡,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앞의 책, 59~60쪽.

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무르기를 끊임없이 한다면 한 해가 다 돼도 한 판도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뒤로 다시는 서평군과 바둑을 두지 않았다. 일찍이 한 귀인(貴人)의 집에 갔을 때였다. 문지기가 그의 성명을 직접 부르는 것이 꺼림칙하여 들어가 최 직장(直長)이 왔다고 알리자, 칠칠은 화를 내며 “왜 정승이라고 하지 않고 직장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였다. “언제 정승을 지냈소이까?” “내가 언제 직장을 지냈더냐. 차함(借啣)하여 나를 높여 불러 주려면 어찌 정승이라 하지 않고 직장이라 부르느냐.” 주인을 보지 않고 돌아갔다.<sup>34)</sup>

일례로 최북과 서평군이 바둑을 둔 사례와 최북이 한 귀인의 집을 방문한 사례를 살펴보자. 전자를 통해 최북은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을 예우하지 않는 자에게 굽히지 않았다고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서평군이 최북을 예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없으며, 대국(對局)에서 한 수 물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또한 서평군과 최북은 내기 바둑을 두고 있었기에, 즐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승부를 겨룬 최북의 생각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대국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즉 최북과 서평군의 지위의 차이를 고려하여 최북이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는, 남공철의 언급처럼 최북은 강한 자의식에 따른 오만한 성격 때문에 타인의 사정을 살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 서평군이 최북의 자의식과 오만한 언행을 일정 부분 용납하였기에 그들의 대립이 일단락되었을 텐데, 출중한 바둑 실력을 갖춘 자들이 겸손한 자세를 보여 주어 바둑을 두는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sup>35)</sup> 반면, 최북은 서평군과 교제할 수 있는 인연을 끊었다. 이를 통해 최북은 강한 자의식에 따른 오만한 성품 때문에 그에게 관심을 보인 달관이나 서평군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하였고, 그들과의 인연도 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 七七性亢傲不循人。一日與西平公子圍碁賭百金。七七方勝而西平請易一子。七七遽散黑白斂手坐曰：“碁本於戲。若易不已則終歲不能了一局矣。”後不復與西平碁。嘗至貴人家。闈者嫌舉姓名入告崔直長至。七七怒曰：“胡不稱政丞而稱直長。”闈者曰：“何時爲政丞。”七七曰：“吾何時爲直長耶。若欲借啣而顯稱我則豈可捨政丞而稱直長耶。”不見主人而歸。 남공철, 앞의 책; 유재건,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앞의 책, 585~586쪽.

35) 김경희, 「유찬홍(庾繼洪)의 삶과 행적에 대한 시론적(試論的) 고찰 - 홍세태(洪世泰)의 <유춘곡찬홍(庾春谷繼洪)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6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179쪽.

그리고 최북이 한 귀인의 집을 방문한 사례에서는 최북의 강한 자의식이 상대방의 배려도 무색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지기는 최북을 대접하는 차원에서 직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북은 문지기의 배려는 고려하지 않고 흥분하였다. 최북은 높은 직함으로 불러 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차함하려면 높은 직함으로 불렀어야 한다며 격분하였는데, 이는 그가 중인인 자신을 사대부의 직함으로 부른 것에 심사가 뒤틀렸기 때문이다. 즉 평소에 품고 있던 신분 차별에 대한 불만이 순간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최북은 애꿎은 문지기에게 화풀이하였고, 최북을 예우하려던 문지기는 봉변을 당하였다. 이처럼 상대방을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일방적 주장도 말썽이었지만, 최북이 어떤 목적으로 귀인의 집을 방문했을 텐데 문지기와 의 갈등 때문에 귀인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욱 문제적이다. 이는 강팍한 성격 때문에 자신의 일을 그르친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면 (㉞)를 통해 최북의 강한 자의식에 따른 오만한 성품은 타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그 갈등의 해결을 어렵게 하며, 그의 계획이나 활동을 망친 요인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㉞) [최북은] 금강산을 유람하다가 구룡연(九龍淵)에 이르러 갑자기 크게 부르짖으며, “천하 명사(名士)인 내가 천하 명산(名山)에서 죽는 것이 족하다.”라고 말하고, 못에 뛰어들어 거의 구할 수 없을 뻔하였다.<sup>36)</sup>

[최북은] 본래 술을 즐기고 집을 나가 유람하기를 좋아하였다. [금강산의] 구룡연(九龍淵)에 들어가 매우 기뻐하여 술을 마시고 심하게 취하여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였고, 조금 있다가 또한 큰 소리로 “천하의 명인(名人) 최북은 마땅히 천하의 명산(名山)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부르짖었다. 마침내 몸을 날려 연못으로 뛰어들었는데, 곁에 구해 준 사람들이 있어서 빠지지 않았다. 마주 들려 산 아래 평평한 바위에 내려와 숨을 헐떡거리며 누워 있다가 문득 일어나 희연히 길게 휘파람을 부니, 메아리가 숲을 진동하여 깃들어 있던 매들마저 모두 휘휘 날아가 버렸다.<sup>37)</sup>

36) 遊金剛 至九龍淵 忽大叫曰：“天下名士 死於天下名山 足矣。” 墜淵幾至不救. 조희룡,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앞의 책, 59~60쪽.

37) 嗜酒喜出遊. 入九龍淵 樂之甚, 飲劇醉 或哭或笑, 已又叫號曰：“天下名人崔北 當死於天下名

다음으로 위의 두 인용문은 최고의 예술가로서 수려한 산수에 예술혼을 묻고 싶었던 최북의 미에 대한 극도의 탐닉이 탐미주의적 태도와 상통함을 보여 준다. 최북의 자의식의 과잉, 그가 스스로를 천하의 명인으로 자부하는 것 등은 극도로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 태도이며 이는 낭만주의적 정신의 징후이다.<sup>38)</sup> 투신 장면에서는 자연을 삶의 최고 가치로 삼고 자연과의 동화를 통해 물아일체의 경지를 추구하며 진락(眞樂)을 누리고자 한 중세적 친자연주의의 극단적 분출을, 투신한 후 휘파람을 분 장면에서는 자연과의 극적 상합을 시도한 호방한 기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북의 파격적 일탈 행동, 음주를 통해 증폭된 최북의 자존 의식과 극단적 풍류 의식은 현실의 질곡과 모순을 대변하였다기보다, 술과 자연 속에 함몰되어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환상하며 현실을 외면하여 도피했다는 한계가 있다.<sup>39)</sup>

특히 최북의 낭만적 성향을 주목한 남공철과 달리 조희룡은 (애)를 통해 관련 일화를 간단명료하게 서술하되 최북의 목숨을 잃을 정도의 돌발적이고 무모한 행동과 일탈적 성향을 부각하였다. 최북의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인 태도가 현실의 질곡과 모순을 해결하기는커녕 그의 예술뿐만 아니라 삶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또한 남공철이 기록한 음주 관련 사실을 기술하지 않았는데, 이는 위의 일화가 음주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를 일삼은 최북의 성품 및 언행의 문제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조희룡은 전개부1인 (애)~(애)를 통해 강한 자의식에 매몰되어 자의식이 과잉적으로 확대된 최북이 인간관계를 원만히 형성하거나 타인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사실과, 자신의 일을 그르치고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그리고 전개부2인 (애)에서는 강한 자의식이나 자의식의 과잉에 따른 행적의 문제성 또는 위험성이 심화된 결과로, 최북이 자신의 눈을 찌른 일화를 묘사하여 자의식의 과잉이 초래한 치명적 결과를 보여 주었다.

山。”遂翻身躍至淵，旁有救者得不墮。昇至山下盤石，氣喘喘臥，忽起劃然長嘯，響動林木間，棲鵲皆磔磔飛去。 남공철, 앞의 책; 유재건,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앞의 책, 584쪽.

38) 박희병, 앞의 논문, 135쪽.

39) 홍선표, 앞의 논문, 27쪽.

### 3) 전개부2 - 자의식의 과잉이 초래한 불행

㉞ 한 귀인이 최북에게 그림을 요구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자 장차 위협하려 하였다. 최북이 분노하여 말했다. “남이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나를 저버리는구나.” 곧 자신의 한 눈을 찢러 멀게 하였다. 늙어서는 한쪽에만 안경을 낄 뿐이었다. 나이 사십구 세에 죽으니 사람들이 칠칠의 징조라고 하였다.<sup>40)</sup>

㉞는 최북이 자신을 당대 최고의 예술가로 자부한 데서 나온 강렬한 자존의식, 일체의 권위와 지배적 규범 특히 신분 차별에 대한 항거 등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술 주체의 과잉된 자의식과 적대적 객관 세계 간의 심각한 괴리에 대한 고뇌와 반발로서 온몸으로 내보인 항의의 의미를 갖고 있다<sup>41)</sup>는 뜻이다. 그런데 최북에 대한 조희룡의 시선은 그가 스스로에게 가학적 행동을 하며 불행을 자초했다고 예리하게 비판하였다는 점에서, 조선 시대의 기록자들 그리고 위의 평가와 거리가 있다. 조희룡은 최북이 타인이 아닌 자신의 눈이 자신을 저버린 것에 대해 분노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눈이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북은 자의식의 과잉으로 자신만의 절대적 자유만 고수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오만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여 스스로를 난처하게 만든 자신에게 분노한 것이다. 즉 조희룡은 최북이 자신의 눈을 찢른 것은 자신과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한 눈 때문에 궁지에 몰렸기에 눈을 쳐벌했거나,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운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눈을 찢르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묘사하였다.

예컨대 「오이디푸스 왕」에서 자의식의 과잉으로 누구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고 믿었던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찢렸다. 오만했던 자신의 과오를 깨달은 오이디푸스가 선택한 실명(失明)이라는 자기 처벌 방식에는 보는 감각과 진실을 파악하는 능력은 동일한데 그

40) 一貴人 要畫於北, 而不能致 將脅之. 北怒曰: “人不負吾, 吾目負吾.” 乃刺一目而眇. 老挂鬚鬚 一圈而已. 年四十九而卒. 人以爲七七之讖. 조희룡,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앞의 책, 59~60쪽.

41) 박희병, 앞의 논문, 141쪽.

는 이 능력이 부족하였고, 그의 교만과 광기(狂氣)의 발산은 자멸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그는 운명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sup>42)</sup> 이 사례를 참고하면 오만한 성정으로 방자하게 행동하여 귀인과의 갈등을 절정으로 치닫게 하고 스스로를 궁지로 내몬 최북이, 자신의 눈을 찢러 자신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과오를 인정하고, 자의식의 과잉으로 상대방이나 외부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스스로에게만 충실했던 자신을 처벌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가족들의 사망, 지속적인 과거(科擧) 낙방, 혼인의 실패 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우한 생애를 보낸 명(明)나라의 문인(文人)인 서위(徐渭, 1521~1593)는 정신병을 얻어 44세에 자살을 기도하였다. 특히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그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머리를 도끼로 찍고 송곳으로 자신의 두 귀를 찢었다.<sup>43)</sup> 또한 고갱(Paul Gauguin, 1848~1903)의 기록에 따르면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는 1888년 12월에 면도칼을 갖고 고갱을 위협하였고, 방어한 고갱에게 위축된 고흐는 정신 착란 상태에서 발작하고 왼쪽 귓볼을 잘라서 신문지에 싸서 창녀에게 선물하였다. 고흐는 화가가 되기 전인 1879년 12월 이후에도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몽둥이로 자신을 구타하거나 집 밖의 찬 바닥에서 맨몸으로 취침하는 신체적 자학 행동을 하였다.<sup>44)</sup> 서위와 고흐가 정신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자해 행동을 한 사례들을 고려하면, 최북의 자해는 그가 자의식의 과잉이 초래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극단적 상황에 처하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지른 행위일 수 있다.

이때 조희룡이 위의 일화를 최북의 죽음과 연계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42) 안치운, 「오류에서 진실로, 죽음에서 삶으로 -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난 눈의 이미지 연구」, 『한국연극학』 20, 한국연극학회, 2003, 150쪽; 이선정, 「비극적 영웅 신화로서의 <오이디푸스 왕>과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다시 읽기 - 라캉의 주체담론을 중심으로」, 『영미어문학』 126, 한국영미어문학회, 2017, 95쪽; 진일상, 「문학과 시선 - '오이디푸스'에 투영된 고대그리스의 '시선'」, 『괴테연구』 18, 한국괴테학회, 2006, 217쪽.

43) 박주열, 「徐渭의 異端의 書藝審美意識 考察」, 『동양예술』 40, 한국동양예술학회, 2018, 147~150쪽.

44) 이영식, 「현대 정신의학에서 바라본 반 고흐의 정신세계와 정신질환에 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60-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21, 99쪽·102쪽·108~109쪽.

조희룡은 최북의 행적을 기록한 이익부터 남공철에 이르는 인물들보다 후대인으로 최북의 사망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였다. 특히 1786년에 신광하가 최북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쓴 「최북가」에 따라 75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sup>45)</sup>되는 최북이 49세에 사망하였다고 서술하였다면, 이는 조희룡이 최북의 사망 시기를 몰랐다가보다는 최북의 기행이 생사(生死)를 번복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달관, 서평군, 문지기 등과의 만남에서와 달리 귀인을 만난 최북이 자신과 세계를 잘못 인식한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고 괴로워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북이 기행을 통해 득의양양하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 일화들과 달리, 실명이라는 자기 처벌을 통해 그의 강한 자의식과 신념이 일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떨친 명성을 순식간에 잃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과거처럼 생활할 수 없는 최북은 살아있어도 망자(亡者)와 다름없었음을 설파한 것이다.

### 3. 조희룡의 문제의식 - 중인 예술가의 자의식

(최북은) 만년에 한 눈이 멀었다. 드디어 예전에 쓰던 안경을 낄 때 안경알 하나를 제거하였다. 여기에서 그의 성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일찍이 한 재상가에서 귀족의 자제들이 그림을 펼쳐 놓고 감상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는 그림을 몰라.”라고 말하자, 최북이 바로 분노하여 “나는 그림을 모르다니.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아는가?”라고 말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 웃음이 났다.<sup>46)</sup>

조희룡의 문제의식이 강렬하게 투영된 논찬을 살펴보기 전에 논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신광하의 「최북가」와 남공철의 「최

45) 허성욱·하영준, 앞의 논문, 234~235쪽.

46) 晩年眇一目. 遂取舊所御靛黷亦去其一眼. 其性情可見. 嘗於宰相家 貴游子弟展畫看閱. 必曰: “畫則吾不知.” 崔便勃然曰: “畫則吾不知, 他物皆知乎?” 人皆愧笑. 정약용,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보유(補遺)-혼돈록(餽鈍錄)』 권2, 「최북(崔北)」.

칠칠전」에는 최북의 한쪽 눈이 멀었다는 사실만 서술되어 있다면,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그 사실을 통해 최북의 성격 즉 그의 과단성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귀족의 자제와 관련된 일화를 연이어 소개하여, 최북이 매사에 사리가 분명하고 그의 결단이 이치에 맞았다는 사실을 부각하였다. 즉 정약용은 최북의 한쪽 눈이 먼 것을 기행과 관련짓지 않았다. 그렇다면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북이 눈을 찌른 일화는 조희룡이 상상력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최북이 눈을 찌른 일화의 허구성 유무를 논의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고찰이 요구된다. 물론 최북이 눈을 찌른 일화가 진실인지를 밝히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최북전」의 서술 구조와 논찬을 고려하면 조희룡은 최북이 눈을 찌른 일화를 사실로 간주하고 최북의 행적을 서술한 만큼, 조희룡이 그 일화가 포함된 「최북전」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배) 호산거사는 말한다. “최북의 품모가 매섭구나. 왕공 귀족의 노리갯감 이 되지 않으면 그만이지 어찌하여 스스로를 이처럼 괴롭힌단 말인가.”<sup>47)</sup>

조희룡은 자의식이 강한 최북의 결벽적 자신감과 오만한 성격(ㄱ)~(나)에 따른 기행으로 점철된 행적(ㄷ)~(ㄹ), 이로 인한 비참한 말로(末路)(ㄴ), 이러한 행적에 대한 경계(ㄹ)를 단계적으로 서술하여 최북의 삶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서술 구조를 바탕으로 조희룡이 최북의 성품 및 기행을 문제시한 까닭을 살펴보자.

예전에 중국의 문동(文同, 1018~1079)이 대나무를 잘 그렸는데, 비단을 가지고 청하러 오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다. 이에 문동은 염증을 느끼고 그것을 땅에 던지며 욕하기를 “내 장차 버선을 만들어 신겠다.”라고 하였다. 지금 최북의 산수 그림과 화훼 그림은 문동의 대나무 그림과 비슷하고 그 명성도 나란한데, 염증을 느낀 나머지 문동처럼 비단을 버선으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sup>48)</sup>

47) 壺山居士曰：“北風烈也。不作王門伶人足矣。何乃自苦如此。” 조희룡,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앞의 책, 60쪽.

먼저 조희룡 이전에 최북의 성품이나 언행에 대해 염려한 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자. 1749년에 최북의 그림 실력과 처지가 중국의 문동과 유사하다고 말한 이현환은, 염증을 느끼고 버선을 만들겠다는 문동의 사례를 통해 최북에게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말한 문동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충고하였다. 최북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의 그림 실력을 인정한 이현환은 최북의 오만이나 기행을 염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며 사의(事宜)에 맞도록 타이른 것이다. 최북의 강한 자의식과 인간 최북을 멸시한 자들에 대한 최북의 불만은 공감하지만, 그것들이 극단화되어 표출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을 걱정한 것이다.

내가 살펴보니 그(金弘道, 1745~1806)는 태도가 몹시 차분하여, 그림 한 폭 그릴 때마다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듯했다. 어찌 [김홍도의 행적 이] 최북이 무리 속에서 제멋대로 취하여 욕하고, 동료들을 만나면 자신을 독보라고 칭한 것과 같겠는가. 최북은 궁하여 사망하자 그의 그림도 천대를 받았는데, 물정이 때에 따라 변한다고 말하지 마라.<sup>49)</sup>

최북이 안전과 이징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한 신광하는 화단의 기린아로 떠오른 김홍도를 예찬할 때 최북을 낮추어 자연스럽게 김홍도를 부각하였다. 최북이 그림을 잘 그려도 술에 취하여 다른 화가들을 무시하며 자기만 잘났다고 말하여 동료들과 갈등을 겪은 것을 서술한 신광하는, 최북이 궁해서 사망하자 그의 그림이 천시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를 자의식이 지나치게 강한 자의 운명으로 귀결시켰다. 이와 같이 사대부인 이현환이나 신광하는 최북에게 또는 독자에게 강한 자의식을 기반으로 오만을 부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어조로 서술하였다면, 중인인 조희룡은 그 논조를 보다 노골적이고 신랄하게 드러냈다.

48) 昔文獻可善畫竹，人持縑而來者 殆無數。獻可厭之 投諸地而罵曰：“吾將以爲韉。”今七七山水花卉 與獻可竹并捋而齊其名，其厭之之意 亦欲韉其縑矣。이현환, 앞의 책; 정은진, 앞의 논문, 55~56쪽 재인용.

49) 吾觀其人貌甚靜 每畫一物心若悟。豈如崔北衆中恣醉罵 目見曹耦稱獨步。北也窮死畫亦賤 休道物情隨時變。신광하, 인형택 옮김, 「제정대부길화김홍도(題丁大夫乞畫金弘道)」, 『李朝時代 敘事詩』 下, 창작과비평사, 1992, 280~281쪽.

사실 『호산외기』의 서문에서 “비록 여항에 전할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어느 자료를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sup>50)</sup>라고 말한 조희룡은,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여항인을 역사에 남기고자 『호산외기』를 지었다. 『호산외기』의 전(傳)은 조희룡이 여항인의 아픔과 고난을 강렬하게 표출<sup>51)</sup>하기 위해 인물의 개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여 유학의 규범의식이 출발점이자 귀결점인 일반적 전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서술자의 의도가 전개부에 드러날 수 있다면 생각할 수도 있는 논찬부를, 조희룡은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한 어조로 피력하였고 솔직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sup>52)</sup>

예컨대 각 화가의 행적을 서술하며 예술적 재능을 높이 평가한 조희룡은 김홍도는 “인품이 높았고”, 서른에 사망한 김영면(金永冕, 1790?~1821?)은 “재주는 풍부하나 수명이 박하였으며”, 이재관(李在寬, 1783~1837)은 “시대의 필요에 응해서 태어난 것이지 헛되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논찬하였다. 특히 큰 비바람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바다 한가운데에서 크게 웃으며 춤을 춘 대범함, 거위 털로 만든 기괴한 옷을 입고 한밤에 거리를 다녀 순라군을 놀라게 하며 광탄(狂誕)함을 보여 준 임희지(林熙之, 1765~?)는 역관(譯官)이자 화가로서 기호(嗜好)가 분명하였고 자의식이 강했는데, 조희룡은 그에 대해 “백력(魄力)으로 정립(定立)된 사람”<sup>53)</sup>이라고 논찬하였다. 이처럼 조희룡은 역량 있는 화가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하였고, 여항인의 개인의식을 긍정하고자 반사회적이거나 파괴적인 성향을 일정 부분 드러내는 강한 자의식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sup>54)</sup>

그런데 「최북전」의 구조와 논찬은 『호산외기』에 수록된 중인들의 전기(傳記)를 관통하는 조희룡의 문제의식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호산외기』를 통해

50) 雖有里巷略于人之可傳 而何從而得之乎. 조희룡,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앞의 책, 30~31쪽.

51) 이선우, 「붓 끝에 쏟아낸 울분 - 여항문인화가 조희룡의 삶과 예술」, 『한국인물사연구』 19, 한국인물사연구회, 2013, 207쪽.

52) 윤태식, 「19세기 여항인물전기집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32~33쪽·53~54쪽·63쪽.

53) 人品高. / 豊於才而當於壽. / 殆應時 非虛生也. / 魄力定者. 조희룡,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앞의 책, 65쪽·67쪽·76쪽·91쪽·129~130쪽.

54) 심호남, 「閩巷傳記集 所載 逸士型 人物傳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55쪽.

중인층의 우울한 심사와 비애를 공감하며 지배층에 대한 그들의 반발감이나 비분강개를 대신하여 표현하고 중인의 기개를 묘사한 조희룡.<sup>55)</sup> 그가 자의식이 독특하고 강한 최북의 오만한 성정, 기행의 문제성 또는 위험성과 관련된 일화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자의식의 과잉으로 궁지에 몰린 최북이 자해하는 치명적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으나 신분 때문에 천대받고 고뇌한 여항인의 뛰어난 능력과 특이한 행적을 후세에 전하여 여항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한 조희룡이 최북의 성격 및 기행을 기벽(奇癖)이 아닌 광기로, 언행의 자유가 아닌 무모함으로, 예술가의 개성이 아닌 일탈로, 보다 나은 삶의 영위를 위한 자양분이 아닌 일상적 삶을 무너뜨리는 해악으로 본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술 창작 실력이 뛰어나고 도덕을 지키며 문장력을 갖추고 있어도 중인 출신의 예술가일 경우 차별을 당하는 현실은 최북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의 동요로 인한 신분 상승 욕구에 따라 신흥 부유층 및 경제력이 있는 중서층이 주된 문화 담당층으로 부상하여 소비와 유흥이 촉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류는 자아의식이 고양되고 문사화(文士化)된 여항 화가들이 많이 등장하는 요인이 되었다.<sup>56)</sup> 그들은 사대부 문인들의 문화적 영향권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성정에 의지하여 개성을 드러내고 다양한 기법을 구사하는 등 사대부를 능가하는 예술적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천대를 받았다. 조선 후기의 여항 예술가는 자부심, 자의식의 성장 등을 근간으로 활발히 활동하였고 예술적 재능을 인정 받았으나 사회적, 문화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대부의 강고한 지배력 때문에 성장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희룡은 여느 여항 예술가처럼 노리갯감으로 간주된 최북의 고통은 공감하지만, 강한 자의식에 따른 광기 어린 기행들이나 자의식의 과잉에 따른 자해 행위는 예술가의 삶뿐만 아니라 최북의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지나치다고 생각하였다. 조희룡은 주변 인물들이 도인(道人) 또는 거사(居士)라 칭할 정도로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술적으로 사대부

55) 한영규, 앞의 논문, 82~83쪽.

56) 김도영, 앞의 논문, 114쪽.

중심의 사회 체제에 예측되지 않은 상대적 독립을 유지하였지만, 그 역시 중인이었기에 중세 해체기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이나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절감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sup>57)</sup> 또한 직업 화가로 성공하였으나 상층으로의 편입을 늘 갈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분 제도의 벽을 실감하였기에, 최북의 질곡을 심분 이해하는 마음으로 최북을 평가한 것이다. 최북이 사고의 전환을 통해 현실의 차별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었기를 나아가 자신을 포함한 중인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각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실제로 17세기 중엽까지 활동한 비파 연주자 송경운(宋慶雲, ?~?)은 인기와 명성을 누렸는데, 신역(身役)에 매여 예측적 삶을 영위하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삶을 원하여 전주(全州)에서 생활하였고, 전주 사람의 벗이자 존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수십 명의 제자도 배출하였다. 그는 자신의 기예를 뽐내지 않았고 자신의 기예를 믿고 남에게 교만스럽게 대한 적도 없었다.<sup>58)</sup> 또한 신분 때문에 받은 울분을 억누르며 절제된 붓질로 산수를 화폭에 그린 이인상(李麟祥, 1710~1760)은 고아한 인품으로 신분에 따른 내면의 울분을 예술로 승화시켰다.<sup>59)</sup>

즉 위에서 살펴본 화가인 김홍도, 김영면, 이재관, 임희지와 함께 송경운과 이인상은 공통적으로 왕공 귀족의 노리갯감이라는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나, 그 현실의 질곡에 오만하고 격렬하게 저항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여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삶을 나름대로 영위하였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조희룡은 최북과 자신은 강한 자의식과 자의식의 과잉에 따른 오만과 기행이 예술적 성패뿐만 아니라 생사와 직결되는 신분에 속해 있다고 여겼기에, 타이르거나 주의를 당부한 사대부와 달리 최북의 행적을 애처로운 심정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또한 중인으로서의 신분적 자각이 철저했던 조희룡은, 자의식이 일정한 한도를 넘거나 정도

57) 김경희, 「조희룡의 <장오복전(張五福傳)>에 대한 시론적 검토」, 『동방학』 3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7, 285~286쪽.

58) 박희병, 앞의 논문, 102~106쪽.

59) 이선옥, 「조선 후기 중서층 화가들의 '울분' 표현 양상과 그 의미」, 『인문과학연구』 3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662쪽·684쪽.

가 심하여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극단으로 몰고 가고, 사회적으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고립되고 예술적 재능이 절하된 자의 경우는, 사회적 의미가 없기에 인물사의 전범이 될 수 없다고 포폄한 것이다. 이는 일상적 삶의 영위와 예술적 능력의 발휘 및 인정을 전제할 수 없는 기행을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한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중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와 지양해야 할 언행을 변별적으로 서술하여 각자의 삶을 반성하고 본분을 지킬 것을 당부한 조희룡의 문제의식은, 조선 후기에 신분 제도의 질곡을 감내해야 했던 중인,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예술가들의 삶의 태도를 대변한다.

결론적으로 조선 후기에 신분 제도가 동요하였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은 엄존하는 상황에서, 조희룡은 「최북전」을 통해 능력이 뛰어나도 신분이 낮으면 천대를 받는 사실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예술가의 삶,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최북에게, 자신에게, 당대의 중인에게 물었다. 그리고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일탈적 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자신감의 표출로, 신분적 한계에서 벗어난 언행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 자신감이나 능력, 신념, 나아가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답하였다. 즉 최북이 자신의 오만과 기행이 몽매(蒙昧)에서 나온 것임을 하루빨리 성찰하였다면, 자해나 사망과 같은 비극적 일은 최소화되었을 것이라고 계세징인(戒世懲人)한 것이다. 이는 강한 자의식 또는 자의식의 과잉 때문에 보고 싶은 사실만 보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파악하지 못한 자들에게 경종을 울렸을 것이다.

이와 같이 「최북전」에는 세상에 대한 적의(敵意)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경계할 때 예술가의 삶,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조희룡의 혜안이 담겨 있다. 물론 이는 조희룡의 궁색한 자기변명, 자기 합리화, 시대나 집권 세력에 편승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게다가 차별적 신분 제도를 염두에 두고 생활하면, 수치심을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물론 좌절을 겪을 수 있기에 개인의 성장이나 창의성 발휘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신분 제도에 의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거나 그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중인 조희룡<sup>60)</sup>은 차별적 신분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나친 자의식과 몸부림이 창작 활동은 물론 목숨을 위협하거나 육신의 고통을 야기한다면 득

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강한 자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상황, 지배 이념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제어해야 일상적 삶, 예술인의 삶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4. 나가며

지금까지 조희룡의 「최북전」과 다양한 기록들에 나타난 최북의 행적을 입체적으로 비교하며 분석하고 조희룡의 문제의식을 살펴보았다. 첫째, 조희룡은 과거의 기록자들처럼 최북의 독특한 자의식, 뛰어난 그림 실력, 그림에 대한 강한 자부심, 오만한 성격 등을 인정하였다. 둘째, 자의식이 강한 최북의 결벽적 자신감과 오만한 성격으로 야기된 타인과의 갈등, 그 갈등의 해결의 어려움, 이로 인해 일을 그르친 일 등과 관련된 일화를 제시하였다. 셋째, 자의식이 과잉적으로 확대된 최북의 오만한 성품과 일탈적 성향이 그의 예술과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문제성 또는 위험성을 드러낸 일화를 묘사하였다. 넷째, 자의식의 과잉이 초래한 자해 행위를 통해 최북이 자신의 과오로 궁지에 몰린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자신의 과오로 야기된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지른 자해 행위를 통해 그의 자부심과 신념이 일순간에 무너진 일화를 서술하였다. 이러한 일화들을 순차적으로 기술한 조희룡은 신분 제도의 모순에 따른 질곡으로 고통을 받은 최북을 공감하였지만, 삶을 영위하며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어해야 함을 말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차별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최북이, 자신이, 중인이 일상적 삶과 예술인의 삶을 지속할 수 있었기를 또는 있기를 바랐다. 이는 조희룡의 공색한 자기변명, 자기 합리화, 시대나 집권 세력에 편승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차별적 신분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창작 활동과 목숨을 위협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혜안이었다.

60) 김경희, 앞의 논문, 2017, 288쪽.

## 참고문헌

### 1. 사료

남공철, 『금릉집(金陵集)』 권13, 「최칠칠전(崔七七傳)」.

(<https://www.itkc.or.kr>, 검색일: 2023.03.11. 이하 동일)

성해응,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속집(續集)』 책16, 「서화잡지(書畫雜識)」, ‘제최북화후(題崔北畫後)」.

신광수, 『석북집(石北集)』 권6, 「최북설강도가(崔北雪江圖歌)」.

신광하, 『진택집(震澤集)』 권7, 「최북가(崔北歌)」.

이용휴, 『탄만집(數數集)』, 「제풍악도(題楓嶽圖)」.

이 익, 『성호전집(星湖全集)』 권4, 「난정도가(蘭亭圖歌)」.

정약용,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보유(補遺) - 혼돈록(餽飽錄)』 권2, 「최북(崔北)」.

강세황, 김종진 외 옮김, 「표옹자지(豹翁自誌)」, 『표암유고(豹菴遺稿)』, 지식산업사, 2010.

유재건,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이향견문록』, 글항아리, 2008.

이규상,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최북(崔北)」, 『18세기 조선 인물지 - 并世才彥錄』, 창작과비평사, 1997.

조희룡,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최북전(崔北傳)」, 『趙熙龍 全集 6 - 壺山外記』, 한길아트, 1998.

임형택, 『李朝時代 敘事詩』 下, 창작과비평사, 1992.

### 2. 논저

김경숙, 「서얼 문학의 위상 - 소외(疏外)의 문학에서 선구적(先驅的) 문화 담당층으로」,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김경희, 「조희룡의 <장오복전(張五福傳)>에 대한 시론적 검토」, 『동방학』 3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7.

\_\_\_\_\_, 「유찬홍(庾纘洪)의 삶과 행적에 대한 시론적(試論的) 고찰 - 홍세태(洪世泰)의 <유춘곡찬홍(庾春谷纘洪)>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6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 김도영, 「崔北 文人畵의 狂狷의 예술심미」,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1,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9.
- 박주열, 「徐渭의 異端의 書藝審美意識 考察」, 『동양예술』 40, 한국동양예술학회, 2018.
- 박지현, 「烟客許必과 18세기 安山の 회화활동」, 『미술사학연구』 252, 한국미술사학회, 2006.
- 박희병, 「조선후기 예술가의 문학적 초상 - 예인전의 연구」, 『대동문화연구』 2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0.
- 심호남, 「閻巷傳記集 所載 逸士型 人物傳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안대회, 『벽광나치오 - 한 가지 일에 미쳐 최고가 된 사람들』, 휴머니스트, 2011.
- 안치운, 「오류에서 진실로, 죽음에서 삶으로 -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난 눈의 이미지 연구」, 『한국연극학』 20, 한국연극학회, 2003.
- 연구소 한문분과, 「이가환(李家煥)의 <정현쇄록(貞軒瑣錄)>」, 『민족문화사연구』 30,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06.
- 유재빈, 「崔北, 奇人 화가의 탄생」, 『대동문화연구』 10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 유흥준, 「호생관 최북 - 붓으로 먹고살다 간 칠칠이의 이야기」, 『화인열전』 2, 역사비평사, 2001.
- 윤태식, 「19세기 여향인물전기집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선옥, 「조선 후기 중서층 화가들의 '울분' 표현 양상과 그 의미」, 『인문과학연구』 3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 \_\_\_\_\_, 「붓 끝에 쏟아낸 울분 - 여향문인화가 조희룡의 삶과 예술」, 『한국인물사연구』 19, 한국인물사연구회, 2013.
- 이선정, 「비극적 영웅 신화로서의 <오이디푸스 왕>과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다시 읽기 - 라캉의 주체담론을 중심으로」, 『영미어문학』 126, 한국영미어문학회, 2017.
- 이영식, 「현대 정신의학에서 바라본 반 고흐의 정신세계와 정신질환에 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60-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21.
- 이정원, 「군에서의 분노와 자해표현행동과의 관계에서 이차적 분노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1-7,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5.

- 정은진, 「蟾窩 李玄煥의 繪畫 관련 ‘說’ 작품 분석」, 『한문학논집(漢文學論集)』 61, 근역한문학회, 2022.
- 조현우, 「조선 후기 通信使行에 나타난 ‘中間者’와 ‘他者’ - 癸未使行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5, 고전문학한문학회, 2008.
- 진일상, 「문학과 시선 - ‘오이디푸스’에 투영된 고대그리스의 ‘시선’」, 『괴테연구』 18, 한국괴테학회, 2006.
- 한경애, 「毫生館 崔北 書畫의 心學的 美意識 考察」, 『서예학연구』 30, 한국서예학회, 2017.
- 한영규, 「중인층 傳記集 <壺山外記>의 성격과 위상」,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 허성욱·하영준, 「최북의 서예 연구 - 화제시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93, 한국사상문화학회, 2018.
- 홍선표, 「崔北의 生涯와 意識世界」, 『미술사연구』 5, 미술사연구회, 1991.

〈Abstract〉

## A Study on a Critical Mind of Cho Hee-Ryong Concerning Sense of Identity of Middle Class Artist in 「Choi Buk Jeon」

Kim, Kyung-Hoi

Considering 「Choi Buk Jeon」 by Cho Hee-Ryong and materials that traces of the past of Choi Buk were written, I examined a critical mind of middle class Cho Hee-Ryong. First, Cho Hee-Ryong recognized distinctive sense of identity, fastidious confidence, an enormous sense of pride in painting and arrogance of a middle class professional artist Choi Buk. Second, Cho Hee-Ryong presented the fact that Choi Buk had a strong sense of identity and episodes that were related with conflict with others caused by an enormous sense of pride in painting and arrogance, hardship of the conflict resolution, and spoiling work owing to them. Third, Cho Hee-Ryong described the fact that sense of identity of Choi Buk was excessively enlarged and the episode that showed dangerousness that art and life of Choi Buk could be destroyed on account of arrogance and deviant disposition of Choi Buk. Fourth, Cho Hee-Ryong described the episode that through self-injury caused by excessive enlargement of sense of identity, Choi Buk recognized he was forced into a corner, or through self-injury for becoming free from painful situation caused by his mistakes, he lost his pride and belief in a moment. Describing sequentially a series of the episodes, Cho Hee-Ryong wished Choi Buk, his own self and middle class could maintain the lives of an artists containing daily lives in real situation that social discrimination and disdain really existed.

\* Key Words: Cho Hee-Ryong, Choi Buk, Middle Class, Discriminatory Status System, Excess of Sense of Identity

· 논문투고일: 2023년 6월 6일 · 심사완료일: 2023년 7월 14일 · 게재결정일: 2023년 7월 25일